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수직적 질서

김병조

그래픽 디자이너, 한국

Vertical Order in Typographic Space

Kim Byungjo

Graphic designer, Korea

주제어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공간
가치
질서
구조

Keywords
typography
typographic Space
value
order
structure

1. 서론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규칙이 정교하고 견고한 편이다. 이는 타이포그래피가 텍스트 구조와 밀접하고, 태생적으로 대량 복제를 위한 전형화, 규격화, 분업화, 자동화라는 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독성에 대한 요구를 안팎에서 받기 때문에 이미 공유된 규칙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면이 있으며, 이는 어떤 명시적, 암묵적 규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기술과 문화가 바뀌면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들이 구사하던 규칙도 변하게 된다. 필기에서 활판 인쇄로, 인쇄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세로 쓰기에서 가로 쓰기로 변하면서 디자이너가 구사하는 규칙도 변했다. 조판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타이포그래피 분야를 지배하는 조건들과 상충되는데,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전 매체를 흉내내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타이포그래피의 본성상 표면적인 규칙이 변해도 그것의 대체를 마련하게 된다.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표면적인 변화를 관통하는, 내외부에 내재된 질서를 포착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타이포그래피 디자인과 그 산물에서 수직적 질서를 포착하고 그 질서가 잠재된 형식을 탐구하려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체화되어 있는 수직적 질서가 타이포그래피 공간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에 수직적 질서가 잠재한 양태를 살펴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는 먼저 타이포그래피 이전, 텍스트와 인쇄 매체에 수직적 질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 과정, 곧 가치 판단과 출판, 그리고 출판 매체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타이포그래피 행위와 산물에서 수직적 질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들을 찾으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수직적 질서가 내재된 여러 형태로 타이포그래피 표현들을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2. 수직적 질서

2.1 가치 판단

인간은 자신의 요구와 맥락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객체 사이에 위계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대상의 가치란 대상이라는 객관과 가치 부여자라는 주관, 그리고 주변 상황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다. “쓰다는 것은 말을 공간에 멈추는 일이다,”¹ “말은 구술적인 말하기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쓰기는 그 말을 억지로 시각적인 장(場)에 영구히 고정시켜버린다”²는 월터 잭슨 옹(Walter J. Ong)의 말처럼 기록은 어떤 시공간에서의 사건과 생각의 물리적 고정이며, 가치 판단은 기록의 주요 대상이다.

기록의 욕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정보 공유와 동의에 대한 욕구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이것은 출판이라는 정보의 공식화 행위를 통해 표출된다. 다시 말해, 어떤 대상에 관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가치를 부여하기를, 자신의 활동이 불멸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출판의 커다란 동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가치 판단의 출판은 가치 판단의 공유를 넘어 ‘보존’을 뜻한다. 자신의 가치 판단을 출판하는 행위는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위계를 집단 기억 속에 보존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출판 매체의 물리적 보존성보다 보존성이 더 뛰어난 집단 기억에 자신이 부여한 대상의 위계를 보존하는 것은 대상의 위계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요구와 상황의 맥락에 따라 대상의 위계를 판단하는데 그 위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들, 예들어 신이나 왕, 조상, 부모 등의 위계를 사람들과 공유, 보존해왔다. 결과적으로 출판을 통해 대상의 위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대상 위계의 공유와 보존을 위한 출판 매체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2.2 가치 출판

어떤 가치 판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보존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출판 매체에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정보의 공식화라는 출판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려면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좋던지 시간적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시간적 접근성은 디지털 매체가 좋다.

둘째, 물리적 보존성이 뛰어나야 한다. 오랜 시간동안 대상의 가치를 널리 출판하려면 매체가 물리적으로 견뎌야 한다. 여기에는 대상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여 위계를 더욱 높이는 상징적 측면도 있다.

셋째,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매체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출판 과정이 복잡함, 동원되는 사람의 수와 시간에 비례한다. 즉 매체를 통해 출판되는 정보에 대한 검열 과정이 많을수록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

다섯째, 매체의 '물질적 권위'가 대상의 위계에 적합해야 한다. 많은 노동력과 시간, 곧 많은 자본이 필요한 매체는 그 자체로 높은 물질적 권위를 가진다. 그 매체를 전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대상의 위계가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물질적 권위가 정보 전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 출판 매체는 건축과 책이다. 둘 모두 접근성이 좋다. 높고 거대한 건축물은 당연히 접근하기 쉽다. 책 복제되어 넓은 영역에 유통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³ 건축과 책은 물리적 보존성도 뛰어나다. 특히 건축은 문명이 사라져도 남을 만큼 견고하다. 책은 건축에 비해 약하지만 복제와 휴대를 통해 보존된다. 이는 우리의 많은 역사적 이해가 건축과 책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⁴ 그리고 건축과 책 모두 신뢰도가 높다. 건축과 책 모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오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⁵ 그런 과정에서 정보 검열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건축과 책이 표시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신뢰는 권위로 이어진다. 건축과 책은 많은 사람과 시간을 필요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매체다. 어떤 대상을 건축과 책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부여한다. 게다가 중세의 가장 화려한 책 ‘코덱스 아우레아스(Codex Aureus)’를 보면 책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매체였는지 알 수 있다.⁶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책도 변했다. 예전보다 정보의 전파력을 좋아졌지만 출판 과정이 단순해지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물질적 권위는 떨어졌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책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사라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2.3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피

모든 텍스트는 가시적이며, 따라서 타이포그래피적이다. 그런데 텍스트의 외형, 타이포그래피가 텍스트의 구조나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 세계에서 타이포그래피는 때때로 텍스트에 내재된 (사실은 그렇게 짐작되는) 의미를 외화하는 행위이자 결과로 묘사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텍스트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이다.⁷ 바위 속에 숨은 형상을 드러낸다는 미켈란젤로식의 전달자적 묘사는 그럴 듯하지만, 적어도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타이포그래피의 목적지가 텍스트 밖에서 결정되더라도, 입체적 의미 구조체로서 텍스트는 타이포그래피의 기반이자 출발지이다. 타이포그래피 작업이 각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이나 명시적 의미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언어적 의미 구조가 가시적 구조로 치환되는 가운데 세부적인 의미 관계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지만,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정보의 위계는 타이포그래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⁸

어떤 대상에 관한 수직적 가치 판단은 텍스트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타이포그래피 작업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 타이포그래피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중력의 지배와 사각의 기술적, 문화적 한계 아래에 있는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 다른 말로 “수사적 공간 텍스트를 텍스트에 더하는 의미 전달의 구체화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⁹

3. 질서의 포착

3.1 목록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기본적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쓰기의 방향과 관계 없이 이러한 수직적 위계 감각은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목록은 가장 자연적이고 직접적으로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수직적 질서를 드러낸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가 ‘위’와 ‘아래’에 대해 영구적으로 고정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살아있는 본질인 기초 평면에게도 역시 해당된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연상 작용 또는 자신의 관찰을 기초 평면에 전이시키는 것이라고도 해명할 수 있다.¹⁰

칸딘스키는 기초 평면의 위쪽을 하늘, 아래쪽을 땅이라 했다.¹¹ 땅 위의 인간에게 가장 높은 위치는 하늘이다. 하늘로 향하는 거대한 건축물은 그 높이만큼 어떤 가치를 상징하며, 여기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위계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전제된다. 다음은 하늘의 상징성에 대한 한 건축가의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심이라고 하는 절대적 힘에 의지하려는 본능을 갖는다. 이때 절대적 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뜻인 ‘양천’은 많은 종교에서 핵심 개념이다. 하늘은 다시 수직성과 동의어가 된다. 높은 장소는 지구 중력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땅 위의 세속사를 초월하는 상징성을 획득함으로써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었다.¹²

하늘이라는 절대적으로 높은 공간을 설정하면 그 아래로 수직적 공간 위계가 만들어진다.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아래’로 내려오는 위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3.2 여백

우리에겐 지면의 수직적 질서에 관한 직접적인 단서가 몇 가지 있다. 여백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고문서를 살펴보면 위쪽 여백이 넓은 것이 많다. 위쪽 여백을 천(天)이라는 이름으로 넓은 하늘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아래 여백은 지(地)라고 부르며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상징한다. 이는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이 딛고 있는 땅과 닿지 못하며 그 끝을 가늠하지 못하는 하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물리적 세계에 기반한 이러한 공간 인식 속에서 아래와 위의 여백 사이, 다시 말해 하늘과 땅 사이의 텍스트 영역은 중력의 지배의 받는 인간 세계가 된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아래에 위치하는 텍스트는 중력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존재이며, 더욱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중력을 극복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수직적 공간 인식 속에서 텍스트는 인간과 건축물을 연상시킨다.

하늘과 땅의 수직적 질서보다 황금 비례와 그리드를 발달한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빈도가 적을지 몰라도, 위에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질서가 화면에 내재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3.3 내어쓰기

수직적 질서가 외화된 대표적인 양식은 위로 내어쓰기이다.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림 1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부하와 함께 히타이트를 공격할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카르투스(cartouche)로 둘러싼 람세스 2세의 이름은 부하로부터 가장 멀고, 가장 높은 곳에 쓰여 있다. [1]

설형문자 해독에 단초를 제공한 베히스톤(Behistun) 비문도 마찬가지다. 고 페르시아어와 엘람어, 바빌로니아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베히스톤 비문은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1세(Darius I)가 반란군을 제압한 업적과 페르시아의 (또한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문이 길에서부터 100미터 위에 있다. 비문 내부를 살펴보면 다리우스 1세가 반란군을 밟고 서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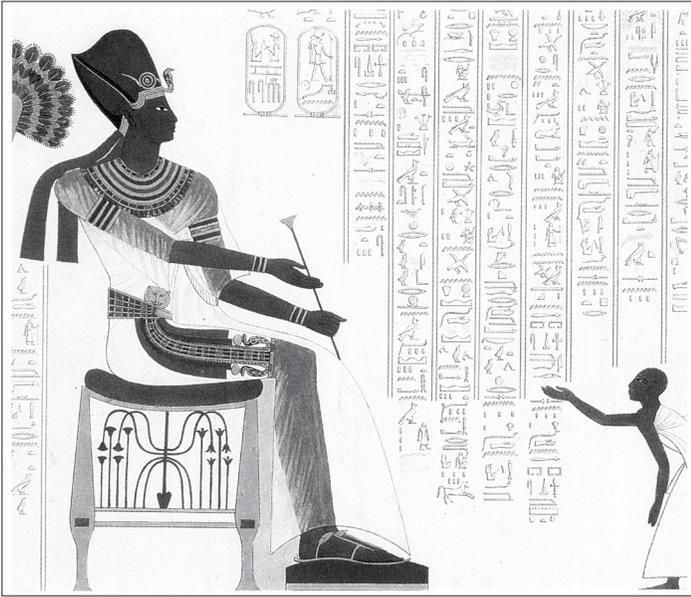


그림 1.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부하와 히타이트 전쟁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 (기원전 1285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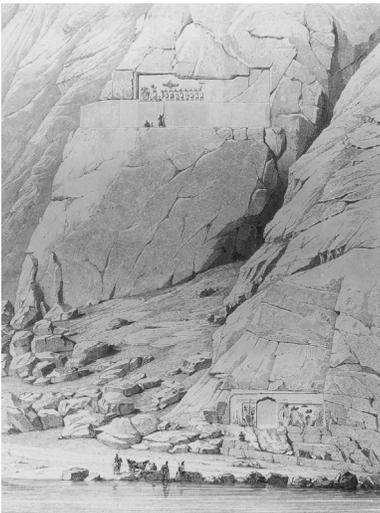


그림 2. 이란 서부 베히스툰 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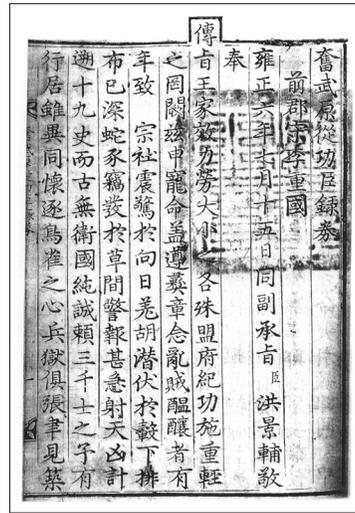


그림 3. 「분무원종공신록권」, 17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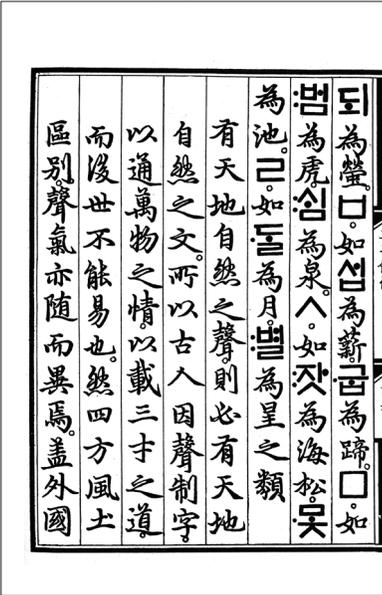


그림 4.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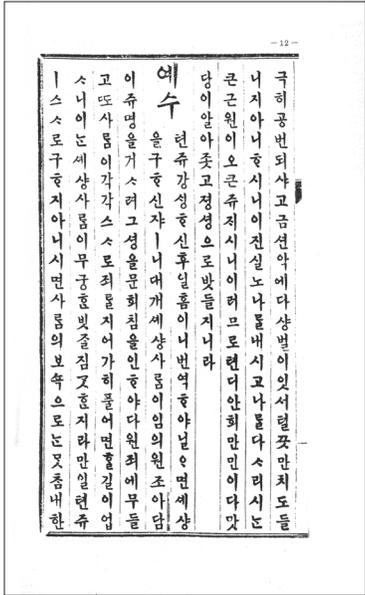


그림 5. 『성경직해』, 1892-1897년



그림 6. 불(佛)자 앞에 절하는 모습

텍스트는 반란군 위에 떠있고, 아후라 마즈다는 그 위에 떠 있다.¹³ [2]

조선 영조4년 (1728년)에 간행된 『분무원종공신록권(奮武原從功臣錄)』¹⁴인테 왕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글줄은 줄 바꿈을 하고 한 글자만큼 위로 내어썼다. 이러한 내어쓰기는 고문서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3]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을 보면 1자를 들여쓰고 있는데, 이는 왕과 신화와의 위계를 타이포그래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밖에도 글자체나 글자크기, 줄바꿈에 의한 글줄 내의 내어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4]

최초의 천주교 성서 번역본인 『성경직해(聖經直解)』¹⁶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줄 바꿈하여 글줄 맨 위에 배치하였다. 거기에는 두 글줄에 걸쳐 큰 활자로 표시하고 글자사이도 넓게 띄워서 한 층 더 돋보이게 했다. [5]

내어쓰기는 신을 모시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6]
내어쓰기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의식적 행위이다. 이는 제작 과정을 보면 분명해진다. 전체 텍스트 중에 위로 내어 쓸 텍스트를 선택하고, 내어쓰는 길이를 정한다. 줄 바꿈을 위해 글자 수를 계산해서 어느 글줄만 튀어나오게 할 지 미리 파악한다. 내어쓰기를 위해 텍스트 자체를 편집할 때도 있다. 내어쓰기의 어려움은 필사와 활판 인쇄 모두 마찬가지다. 필사본은 텍스트를 재배열할 수 없고 느리다. 활판 인쇄는 재배열이 가능하지만 조판 뒤 재생산이 빠를 뿐, 전체를 재조립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 자본이 필요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질서가 로마자의 가로쓰기에 반영되는 어렵다. 또한 붓을 주로 사용한 동양과 달리 세밀한 묘사가 가능한 펜을 사용했다는 점, 독자가 책 구입 후 별도로 표지와 본문 장식을 더하는 유통 방식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4. 질서의 변형¹⁷

4.1 차원 변화: 2차원

수직적 질서의 외화로서 위로 내어쓰기 같은 타이포그래피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피 공간 속에 잠재될 수 있다. 세로쓰기 텍스트를 단어들이 수평적 관계에 놓이는 가로쓰기로 바꾸면, 내어쓰기가 그 의미를 잃는다. 수직 위치 감각이 낱말들이 평등하게 나열된 수평적 글줄 속에 납작해지는 것이다. 특히 의미 단위로 글줄을 바꾸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리는, 단어가 잘리는 조판에서 낱말의 순서는 무의미하다. 결국 가로 내어쓰기는 세로 내어쓰기와 달리 기능적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된다.

그나마 단락의 첫 단어가 돋보이는데, 그것도 마르크스의 계급론처럼 첫 단어를 반복하거나 머리글자 (initial) 같은 시각적 강조가 더해져야 눈에 띄게 된다. 그렇다고 가치 판단이 손실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가로 쓰기에서 수직적 질서는 텍스트에 내화되어 더욱 언어적, 잠재적으로 나타난다.

4.2 차원 변화: 3차원

2차원 공간은 인간의 인식과 상상을 통해 다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역시도 좌표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높이의 축을 깊이의 축으로 치환하면, 높은 텍스트는 앞에, 낮은 텍스트는 뒤에 위치하게 된다. 다시 말해, 평면적 텍스트를 여러 층위로 분할하는 것이다. 글자 크기이나 색깔, 밑줄 등 텍스트를 강조한 타이포그래피 표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7-8] 대표적인 예로 조지 허버트의 구체시 ‘부활절 날개’가 있다. 이 시는 날개 모양으로 조판된 텍스트의 외곽이 작아지면서 하늘로 상승하는 날개의 모습을 표현했다. [9]

여기에서 시간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의 구조적 변화는 모두 시간과 관련있다. 가로든 세로든 텍스트 읽기라는 시간의 흐름에서 앞(전)에서부터 뒤(후)로 향하는 수직적 질서가 있는 것이다. 깊이도 마찬가지로. 감상자가 앞에 있는 텍스트에서 뒤에 있는 텍스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수직적 질서란 시간의 흐름 위에서 텍스트의 순서와 간격을 바꾸는 것이다.

그림 7. 글자 크기와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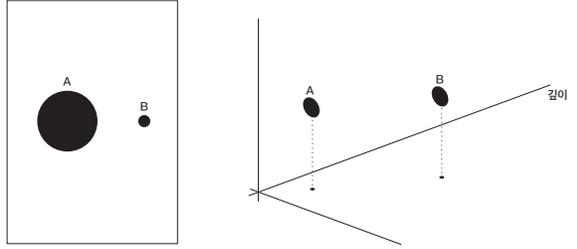


그림 8. 에밀 루더, “재즈”



그림 9. 조지 허버트, “부활절 날개”,
16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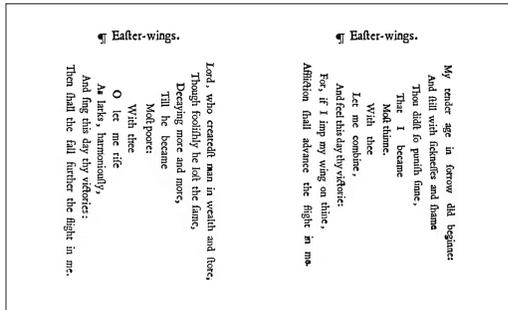


그림 10. 텍스트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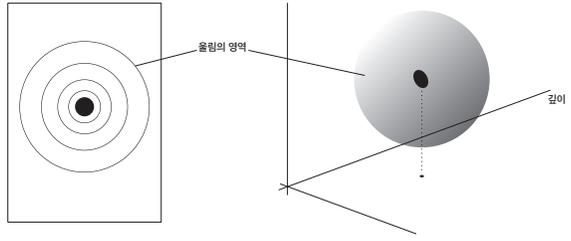


그림 11. 텍스트 사이와 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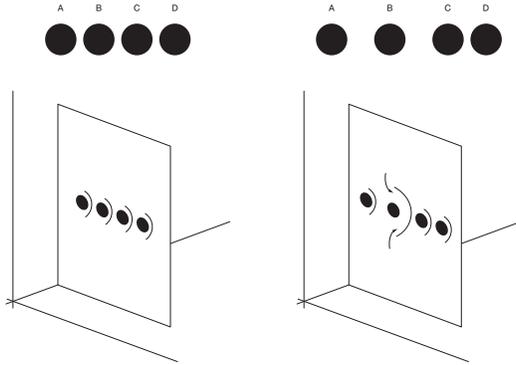


그림 12. 텍스트 힘의 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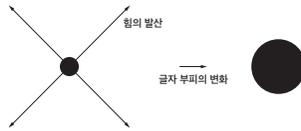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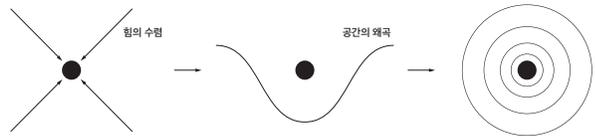


그림 13. 텍스트 힘의 수렴



4.3 장

3차원적 관점에 장 (field) 개념을 더하면 높이는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된다. 연구자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제안한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장 개념은 물리학에서 질량에 따른 시공간 왜곡과 비슷하다. 텍스트에 부여하는 가치가 질량이고, 그것이 강해짐에 따라 주변 시공간을 더 넓게 왜곡하는 (차지하는) 것이다. [10] 이 장의 대표적 표현으로 글자 사이가 있는데, 그림 11처럼 장의 크기가 큰 텍스트는 더 큰 공간을 왜곡 (차지)하고, 그에 따라 글자 사이도 넓어지는 것이다. [11]

장을 가치 판단에 의해 부여된 하나의 힘으로 이해하면 타이포그래피적 변화의 범주는 더욱 넓어진다. 텍스트에 어떤 힘이 주어지고, 그 힘을 발산하면 텍스트의 외형, 즉 글자가 커지거나 굵어지는 등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수렴하면 텍스트의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주변 공간이 휘어져 간접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수직적 질서란 결국 텍스트 사이에 위계를 만드는 힘이 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지면 위의 수직적 질서가 텍스트 내부에 응축되면서 만들어진 힘이 다양하게 변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자신의 요구와 맥락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물리적 매체에, 나아가 집단 기억에 출판, 보존하는 것은 문명 사회의 보편적 성질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출판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보존은 주관의 가치 판단, 나아가 가치관의 공유와 보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판단의 보존을 위한 출판 매체는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과 물리적 보존성, 정보에 관한 높은 신뢰와 물질적 권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쳐서 치밀하고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책과 건축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 출판 매체이다.

책과 건축은 물질적으로 전혀 다른 매체지만, 두 매체 모두 가치 판단의 보존을 위한 수직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하늘 (위쪽 여백)과 땅 (아래 여백) 사이의 인간의 창작물, 곧 텍스트로서 책과 건축에는 수직적 위계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인식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상대적으로 세로 쓰기 문화권에서 강하게 드러나며 위로 내어쓰기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수직적 위계는 다양한 형태로 변태할 수 있는데, 세로 쓰기를 가로 쓰기로 바꾸면 수직적 위계가 텍스트의 순서, 수식어, 간격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리고 위아래의 공간감이 깊이감이 되면 가치의 위계는 글자 크기나 색깔, 밀줄처럼 텍스트를 여러 층위로 분리하는 타이포그래피 표현으로 실현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과 힘 개념을 도입하면,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표현을 지면 위의 수직적 질서가 텍스트 내부에 응축되면서 만들어진 힘이 변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 표현을 텍스트에 부여된 가치의 무게를 서로 다른 구조 속에서 실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의 제안이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타이포그래피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

- 1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명우·임명진 번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년, 17쪽.
- 2 위의 책, 23쪽.
- 3 높고 큰 건축물은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 4 옥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 서울: 책세상, 2010년, 27-29쪽 참고.
- 5 오늘날 책은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책에 대한 신뢰는 다른 매체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6 중세 필경사와 채식사가 제작한 화화 삽화본 값은 100-600프랑으로 매우 비쌌다. 중세 책의 물질적 권위는 소피아 카사뉴-브레케의 『세상은 한 권의 책이었다』(2006년)에서, 활판 인쇄 시대의 책의 권위는 존 맨의 『구텐베르크 혁명』(2002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 문법적으로는 텍스트에서 조사나 구두점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여 의미구조의 축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텍스트들의 위계가 높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해석이 완료된 상황에서 해석자에게 중요한 것은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적 텍스트이다.
- 9 김병조, 『타이포그래피 공간감을 통한 텍스트 구체화 연구』, 홍익대학교, 2009년, 참고
- 10 바실리 칸딘스키,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번역, 열화당, 2000년, 104쪽
- 11 위의 책, 110쪽.
- 12 임석재, 『계단, 문명을 오르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9년, 58쪽.
- 13 베히스툼 비문이 높은 절벽에 배치된 것은 일차적으로 멀리서 잘 보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신의 땅을 의미하는 고대 페르시아어 바가스타나(Bagastana)로 불린 산 절벽 100미터 위에 비문을 새긴 것은 ‘위’가 신과 같다는 공간 위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14 “분무원종공신록권(奮武原從功臣錄券)”은 조선 영조4년(1728년)에 난을 일으킨 김일경의 여당이인좌, 정희량을 오명함 등이 평정했는데, 그 공으로 공신에 봉하고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광좌 등 9000여 명을 원종 공신으로 장부에 적고, 장부 1책씩을 나누어 준 것이다.
- 15 그 밖에도 훈민정음에는 글자체, 글자크기, 글줄의 수 등을 이용해 대상의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이 쓴 ‘예의’의 경우, 한 쪽에 7행, 각 행에 11자가 배열되어있는 반면, 신하들이 쓴 ‘해례’는 한 쪽에 8행, 각 행에 13자가 배열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신하들이 쓴 글은 임금이 쓴 글에 비해 글자 크기가 작다. 또한 세종이 쓴 글은 권위적인 해서체이고, 신하들이 쓴 글은 차분하고 가는 획의 해행서체이다.
- 16 “성경직해(聖經直解)”는 9권 9책으로 되어 있으며 1880년(고종 17년) 프랑스의 리델(Ridel) 주교의 주관 아래 최지혁의 수필자(手筆字)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일본 요코하마에서 주조된 활자를 1886년에 수입하여 최초로 한글 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 17 이 장은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구조』(김병조, 2012년)을 바탕으로 한다.

참고문헌

- 김병조. 「타이포그래피 공간감을 통한 텍스트 구체화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2008년.
———. 「타이포그래피 공간의 구조」. 서울: 홍익대학교, 2012년.
- 노양진. 「몸 언어 철학」. 서울: 서광사, 2009년.
- 루돌프 아르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번역. 서울: 미진사, 2003년.
- 마살 맥루한. 「구텐베르크 은하계-활자인간의 형성」. 임상원 번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년.
- 바실리 칸딘스키.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차봉희 번역. 서울: 열화당, 2000년.
- 막스 야머. 「공간개념: 물리학에 나타난 공간론의 역사」. 이경직 번역. 서울: 나남, 2008년.
- 서경자.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표현된 시간관과 공간관에 대한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6년.
- 소피 카사뉴-브레케. 「세상은 한 권의 책이었다」. 최에리 번역. 서울: 마티, 2006년.
- 진강호. 「문자학개론」. 서울: 민족문화, 1997년.
-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장현영 번역. 서울: 지만지, 2008년.
- 윌더 J. 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명우, 임명진 번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년.
-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활자 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 서울: 책세상, 2010년.
-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서울: 북하우스, 2005년.
- 임석재. 「계단, 문명을 오르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9년.
- 캐롤라인 험프리, 피어스 비렙스키. 「신성한 건축」. 김정우 번역, 창해, 2005년.
- 크리스타 뒤르사이트. 「문자언어학」. 김종수 번역, 서울: 유로서적, 2007년.
- 클라우스 브링커.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이성만 번역. 서울: 역락, 2004년.
- 폴 리콕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 남기영 번역. 서울: 아카넷, 2002년.
- R. 드 보그란데, W. 드레슬러. 「담화·텍스트 언어학」. 김태욱·이현호 번역. 서울: 양영각, 1991년.

초록

이 연구는 타이포그래피 공간에 잠재된 수직적 질서에 대한 탐구이다. 타이포그래피를 가치 판단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보고, 거기에서 수직적 질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응용하려는 시도이다. 2장은 타이포그래피 공간에 수직적 질서가 잠재되는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3장은 수직적 질서가 드러난 타이포그래피 형식들을 살펴본다. 4장은 이차원적 위계가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표현으로 변하는 원리 관해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voted to the potential vertical order in typographic space. Typography is viewed as a means of preserving his values judgement, and attempts are made to understand the vertical attributes of layout and text. Chapter 1 introduces the concept of vertical order in typography from an architectural context. Chapter 2 looks at surface samples of vertical order in typographic norms. Chapter 3 discusses the mechanism and principles of vertical order in typography in a variety of forms.